



원전 수출체계 개편 관련 용역의 완료 시점과 개편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바 없음

<보도내용>

- 2025.11.5.(수), 조선일보 「한전·한수원」 이원화된 원전 수출 창구, 빠르면 연내 개편」 기사에서,
- 조선일보는 “원전 수출 체계 개선 방안 정책자문 용역의 완료 시점을 원래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보다 앞당겨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마무리”하고, “산업부는 원전 수출 주도권을 어느 특정 기관에 통으로 맡기는 방식을 지양하고,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용역 수행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원전 수출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의 완료 시점과 개편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담당관	책임자	과 장	박근오 (044-203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양재원 (044-203-5335)